

2019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9월 26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6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개황 부분에서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 주요 리스크 요인, 금융시스템 복원력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분석시계가 짧은 경우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시계열 내 국면 전환(regime change)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변수들의 비율로 정의되는 지표들의 경우 그 변동원인을 해석할 때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의 움직임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예를 들어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신용/GDP 비율의 경우 민간신용이 꾸준히 늘어난 점 외에 분모인 GDP의 성장세가 둔화된 점도 동 비율의 움직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년 중 신규주택 입주물량 및 분양물량이 예년에 비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면서, 분양물량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전환한 것은 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지방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진 점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았던 2015~16년 중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이들 차주의 연체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예외적인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를 상정하고 금융시스템의 감내 능력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단순히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벤치마크(benchmark)하기보다는 그간의 경제구조 변화, 실물·금융부문의 글로벌 통합 정도,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성 및 파급경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지방 가계부채 상황 및 건전성 점검」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지방의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분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한계기업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 가능성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관련하여, 최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ELS의 약정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과 관련하여 외은지점들이 본점 소재지별로 상이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배경, 그리고 중국계 외은지점들이 역외계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행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의 시계열을 연장하는 등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당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무척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주요 이슈를 적절히 발굴하여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때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나 자본적정성을 주로 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 해외 및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충격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금융충격이 우리 금융시장을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채널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음. 아울러 외환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즉 스톡(stock) 변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외화 유동성 등 플로우(flow) 변수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충격과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서로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통해 볼 때,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저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다룬 지방 가계부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한계기업의 동향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줄 것을 당부 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그동안 금융불균형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지수나 대출 연체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이어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건전성 호조의 이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전성 지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 었음.

###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

###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 가. 신용시장

2019년 상반기중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기업신용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

기업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

#### 나. 자산시장

금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대외 리스크 증대 등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이후 반등 움직임.

#### 다. 금융기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 라. 자본유출입

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로 순유입 기초를 유지.

외국인 주식자금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8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으로 순유입을 지속.

###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

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 3. 금융안정지수

한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8.3, 잠정치) 들어 주의단계(8~22)의 하한을 소폭 상회.

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